

-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발표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지식경제부

- 정부는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4.6일)를 거쳐, 지난 1.13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이하 '석유가격 TF')의 논의결과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였음
- 석유가격 TF는 석유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8일 결성되었음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석유협회 등 유관기관과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연구진이 공동으로, 석유가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주제별 심층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음
 - * 석유가격 TF 참여기관 : 지경부(팀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재정부, 공정위,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 석유협회(정유사), KDI, 에경연, 민간 전문가 등
 - * 총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관계부처 회의(금융위 참여) 개최

1. 석유가격 TF 분석결과

가. 가격 결정방식

(1) 현재 정유사 가격결정방식 ⇒ 국제제품가 방식

- 정유사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제품가격(MOPS)*'에 관세·부과금, 유통비용, 이윤을 더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영업단계에서 국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을 추가적으로 조정함

$$\text{정유사 세전가격} = \text{국제제품가격 (환율)} + \text{관세·부과금} + \text{유통비용} + \text{이윤/시장상황}$$

* 정유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난 1주간의 평균과 전일 국제제품가격 변동폭 등을 혼용

* Mean Of Platts' Singapore(MOPS,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 :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으로 Platts사가 발표

(2) 가격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

- 석유제품은 통상 30~45일전* 선적한 원유로 생산하므로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도입한 원유로 생산할, 따라서 원유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제제품가 방식보다는 석유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동지역 원유도입에 2주~1달, 하역후 정제설비 투입·생산까지 1~2주 소요
- 정유사-산유국간 도입가격 결정방식은 통상 선적월 평균가 또는 선적월과 하역시점의 평균가 등 혼용

** 원유도입가를 기본으로 생산비용, 유통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가격결정
(예시) 원유도입가격 + 세금 + 생산비용(정제비 등) + 유통비용 + 적정 정제마진 등

□ 또한 국제제품가 방식이 국내 수급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석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내 정유사의 생산비용과 큰 관련없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정유사는 수입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국내외 가격격차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수입을 통한 경쟁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3) 원유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원유가 방식은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므로 정유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경쟁이 불충분한 석유시장 여건상 원유가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러나 연산품(joint product) 특성상 원가산정이 어렵고, 적정이윤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과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 원유를 정제할 경우 휘발유(11.9%), 경유(28.5%), 등유(4.1%), LPG(3.5%) 등 시장가치가 상이한 20여개 석유제품이 동시생산됨('10년 국내생산량 기준)

(4) 국제제품가 방식의 한계

□ 원유가(원가에 해당)와 무관하게 국제시장의 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국제제품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가격도 급등하게 됨

○ 이 경우,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정유사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며 전부 국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됨

* 국제휘발유가와 원유가의 차이가 최대 136,07원/까지 발생('07.5월 평균)

○ 한편, 국제제품가가 국제 원유가보다 낮은 시기에는 정제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 국제휘발유가와 원유가의 차이가 -21.45원/까지 발생('08.11월 평균)

(5) 평가

□ 각 가격결정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제품시장 개선을 통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국내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가격 비대칭성

- (검토배경)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비대칭성 개념) 비대칭성을 국제유가(원유가, 제품가)가 오를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과 내릴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한 현상으로 정의하였음
- (분석결과) 분석기간 중 항시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음

* 참고 1 : 석유가격 비대칭성 선행연구 결과 요약

* 참고 2 :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결과

【 계량 분석 】

- ('97.1~'07.5) 정유사 가격은 원유가, 국제제품가와 비대칭 발생
 - * '97~'03년 정유사 가격은 월간단위로 조정된 고시가격(실판매가격과 상이)으로 비대칭성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 ('08.5~'10.12, '09.1~'11.2) 정유사 가격은 국제제품가와 비대칭 발생
- 주유소 가격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에 모두 비대칭

【 주간 가격차 분석 】

- '10년 정유사 가격은 국제휘발유보다 38원/(주평균 0.73원/) 주유소 가격은 29원/(주평균 0.54원/) 더 인상하였음

- (발생원인 및 시사점) 비대칭성 발생원인은 경쟁정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 등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며,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① 정유사는 월말에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 ② 소비자는 주로 유가 상승기에 저가 주유소를 탐색하고 판매가격에도 민감

다. 석유제품가격 인하여력 분석

- (검토배경) 석유제품은 연산품(joint product)의 특성상 원가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국내외 가격차 추이와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석유제품가격의 인하여력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 ① (국제제품가와 원유가의 차이) 최근 국제제품가는 원유가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제비용의 인상요인이 없다면 국내수급과는 무관하게 국내가격이 상승한 것임. 이는 정유사간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 있음 ('11년은 '09 대비 22.8원/기 증가)

* 국제제품가와 원유가의 차이(원/기): ('08)48.9→('09)51.8→('10)58.7→('11.1-2)74.6

- ② (정유사 공급가와 국제제품가의 차이)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제품가격의 차이는 국내 유통비용과 유통마진을 말함
 - 최근 동 가격차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 한정된 생산비용의 증가요인이 없으면 경쟁촉진을 통해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1년은 '09 대비 10.3원/기 증가)

- ③ (최근 주유소 가격추이) 주유소 단계에서 '원가'는 정유사의 공급가이며, 세금을 제외하고 주유소 단계의 비용 인상요인이 없으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증가한 만큼 주유소 단계의 가격도 증가함
 - 작년 연말과 비교할 때, 주유소 가격이 정유사 공급가 상승분 보다 빠르게 상승하였는 바, 이는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11년은 정유사 공급가 상승분(103.4원/) 대비 20.5원 가량 더 상승(123.9원/))

2.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여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 우선, 금년 4월까지만 공개하기로 하였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공개되는 정유사 판매가격의 세분화가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할 예정임
- 한편,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액화석유가스)까지 포함시켜 앞으로는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도 공개하겠음

나.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무엇보다,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라는 현실은 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 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겠음
-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하여 구심점을 구축하고,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
- 동시에,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겠음
-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 하겠음
-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법적기반 수립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다.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

□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국제유가 상승기에 정유사는 원가절감, 유통비용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셀프주유소 확대, 가격 표시판제도 준수, 유사석유추방 등 공정한 유통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서민 난방연료 가격인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등 석유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등 소비자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 를 평가할 계획임

라. 향후 검토 과제

□ 정유사 풀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 정부는 특정 정유사품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예 : 혼합판매) 없이도 他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예) SK풀 주유소에서 SK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 판매 가능

* 現 모범거래기준(권장사항) : 정유사품 주유소에서 타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판매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원칙적으로 저장탱크·주유기를 분리할 것을 권장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법률적 검토를 거쳐 모범거래기준 개정 결정

- 우선, 정유사 풀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유사간 석유제품의 품질차이 유무를 조사하고,
- 외국사례 조사, 국내유가 및 석유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 소비자 단체와 정유업계 및 주유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임

□ 또한,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유가

인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계획임

※ 상기 내용은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4,6일)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참고1 석유가격 비대칭성 선행연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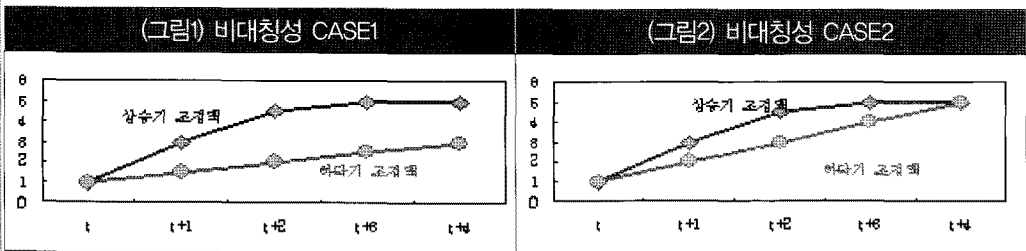
국가	연구자	조사기간 (주기)	원재료 가격변수	제품 가격변수	비대칭성 유무
한국	나인강(2002)	91.1.-00.12.(월별)	원유도입가	소매가	대칭
	문영석(2004)	85.1.-04.5.(월별)	원유가	도매가	비대칭
	이달석(2005)	97.4.-05.6.(월별)	도매가	소매가	대칭
		97.4.-05.6.(월별)	원유가	도매가	비대칭
	임상수(2007)	97.1.-07.5.(월별)	원유가	소매가	대칭
		97.1.-07.5.(주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오선아·허은영 (2007)	97.1-06.12(월별) 97.1-06.12	국제제품가	소매가	대칭
			원유가	소매가	대칭
			원유도입가	소매가	대칭
	김진형 (2007)	97.1-07.6(월별)	원유가	도매가	비대칭
김진웅·김종호 (2009)	01.1-09.1(주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01.1-09.1(주별)	국제제품가	소매가	대칭	
	08.04.15-12.31(일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08.04.15-12.31(일별)	국제제품가	소매가	대칭	
미국	Bachmeier and Griffin(2002)	85.2.-98.11.(일별)	원유가	도매가	대칭
	Kaufmann and Laskowski(2005)	86.3.-92.12.(반월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Radchenko (2005)	91.3.-03.2.(주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영국	Bacon(1991)	82-89(주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Manning(1991)	73-88(월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캐나다	Godby et al(2000)	90-96(주별)	원유가	소매가	대칭
스웨덴	Asplund et al(2000)	80.1.-96.12(월별)	원유가	소매가	비대칭

* 「대칭」이라 함은 통계분석 결과, 비대칭성을 발견하지 못함을 의미

참고 2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결과

① 비대칭성은 국제유가(원유가, 제품가)가 오를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과 내릴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한 현상

*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유가가 최종 조정되는 금액이 상이하거나(그림1), 최종 조정되는 금액은 같더라도 조정폭·속도가 상이한 경우도 포함(그림2)



②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계량분석결과

- 비대칭성이 항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비대칭성이 발견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음
-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이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보다 큼
- ('97.1~'07.5) 정유사 가격은 원유가, 국제제품가와 비대칭
- ('08.5~'10.12, '09.1~'11.2) 정유사 가격은 국제제품가와 비대칭
- 주유소 가격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에 모두 비대칭

〈비대칭성 예시〉

'09.1~'11.2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정유사공급가격(주간)

○ 국제휘발유가격 1원 변동시 국내정유사 공급가격 조정액

- 첫주 조정액 : 상승기 0.478원 > 하락기 0.151원
- 4주간 누적조정액 : 상승기 0.684원 > 하락기 0.410원

